

광주·전남 재래시장 점포 70%

가스 화재 위험 노출

가스공사 조사, 안전등급 최하위 E등급

광주·전남지역 재래시장의 70% 이상이 가스화재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과 가스안전공사가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권 의원(광주 북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1269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광주 재래시장의 77.8%와 전남 재래시장의 74.2%가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강원, 경기 등 재래시장의 E등급 비율은 37.9%, 48%, 48.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주지역의 경우 북구 말바우시장 등 9개 시장 가운데 7개 시장 234개 점포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반면 A등급(양호)은 1곳에 불과했으며, 1곳은 C등급(주의)을 받았다.

전남지역은 고흥시장 등 전체 31개 시장 가운데 23개 시장 650개 점포가 가스폭발 위험에 노출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점검결과 A등급(양호)을 받은 곳은 1곳뿐이었으

며, 2곳은 개선을 요구하는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가스화재 폭발 등이 우려되는 최고위험 등급으로, 가스배관과 보관위치를 어긋난 것이 대부분이지만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광주·전남 재래시장 10곳 중 7~8곳이 가스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전국 재래시장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403억원은, 중기청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전국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가운데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17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가스폭발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해당 기관들이 긴밀히 연계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재래시장 가스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가스안전점검 최하 E등급(위험) 판정 받은 시장 (자료:중기청)

지역	시장명	가스사용점수
광주 (234)	송정매일시장	38
	송정5일시장	10
	하남시장	3
	봉선노점시장	53
	대인시장	14
	말바우시장	93
	달전길시장	23
	고흥시장	22
	과역시장	11
	구래5일시장	19
	니주다소5일시장	8
	보성시장	13
	중앙시장	9
	남부시장	75
과목시장	9	
전남 (650)	여수교동시장	32
	봉선시장	14
	서시장주변시장	94
	덕양시장	14
	영광매일시장	72
	목포종합수산시장	22
	중앙식료시장	50
	동부시장	90
	함동시장	61
	남창5일시장	3
해남5일시장	3	
해남매일시장	19	
함평시장	3	
화순이왕재시장	3	
화순읍재시장	4	

전문대 수시 추가모집

2012년부터 ... 영농·어업 종사자 특별전형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때 미등록 휴학기간을 별도로 둔다.

또 특별전형에서 농·어업 종사자를 뽑는 전형이 생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5개 전문대학의 입시계획을 취합한 201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기본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다. 4년제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은 지난 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모집 전형기간은 2011년 9월8일부터 12월6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11일까지,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12~14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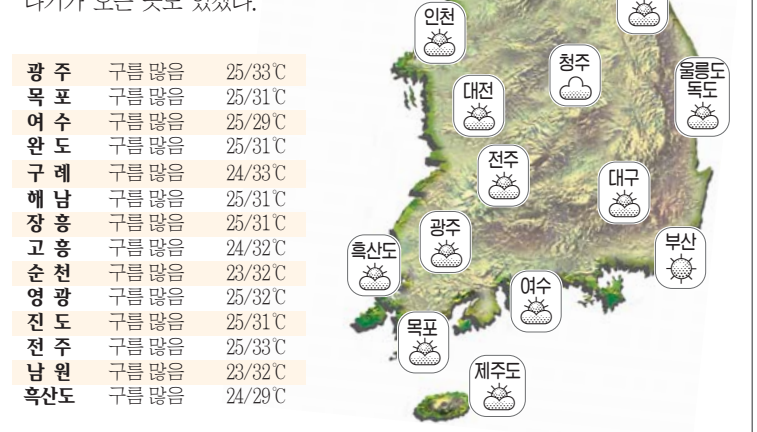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등록기간은 2012년 3월2일까지다. 이진과 달라지는 것은 수시모집 때 미등록 휴학기간을 별도로 뒤 공식적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형의 종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는데 정원 내 특별전형 중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뽑는 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입시의 주류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는 각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는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구름이 많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구분	구름	맑음	구름 많음	구름 짙음
광주	구름 많음	25/33℃		
목포	구름 많음	25/31℃		
여수	구름 많음	25/29℃		
완도	구름 많음	25/31℃		
구례	구름 많음	24/33℃		
예남	구름 많음	25/31℃		
장흥	구름 많음	25/31℃		
고흥	구름 많음	24/32℃		
순천	구름 많음	23/32℃		
영광	구름 많음	25/32℃		
진도	구름 많음	25/31℃		
전주	구름 많음	25/33℃		
남원	구름 많음	23/32℃		
옥산도	구름 많음	24/29℃		

지역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보통	경고	경고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보통	경고	경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욕	08:04	01: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욕	21:28	13:4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욕	02:39	09:1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욕	17:17	23:39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4	25/33	25/33	25/33	24/32	24/31

광주시 주요 관문·간선도로

노후 가로등 624개 교체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에 대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7일 "이들 가로등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누전으로 인해 가로등이 자주 꺼지고 적정 조도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디자인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인도에 보행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동문로(서방 4거리~문흥지구입구 4거리) ▲산정로(혹석 4거리~우산동 3거리) ▲화랑로(미래로21병원~화정 4거리) ▲독립로(대인광장~전변로) ▲구성로(동부소방서~전변로) ▲중앙로(중앙초교~전변로) 등 6개 노선 가로등

642개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추진 노후가로등 4700개를 교체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추가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노후가로등 2700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이 사업으로 철거되는 가로등주는 선별한 후 재가공해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외곽도로에 재설치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간 통행 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주택가 생활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가운데 노후한 곳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시 민방공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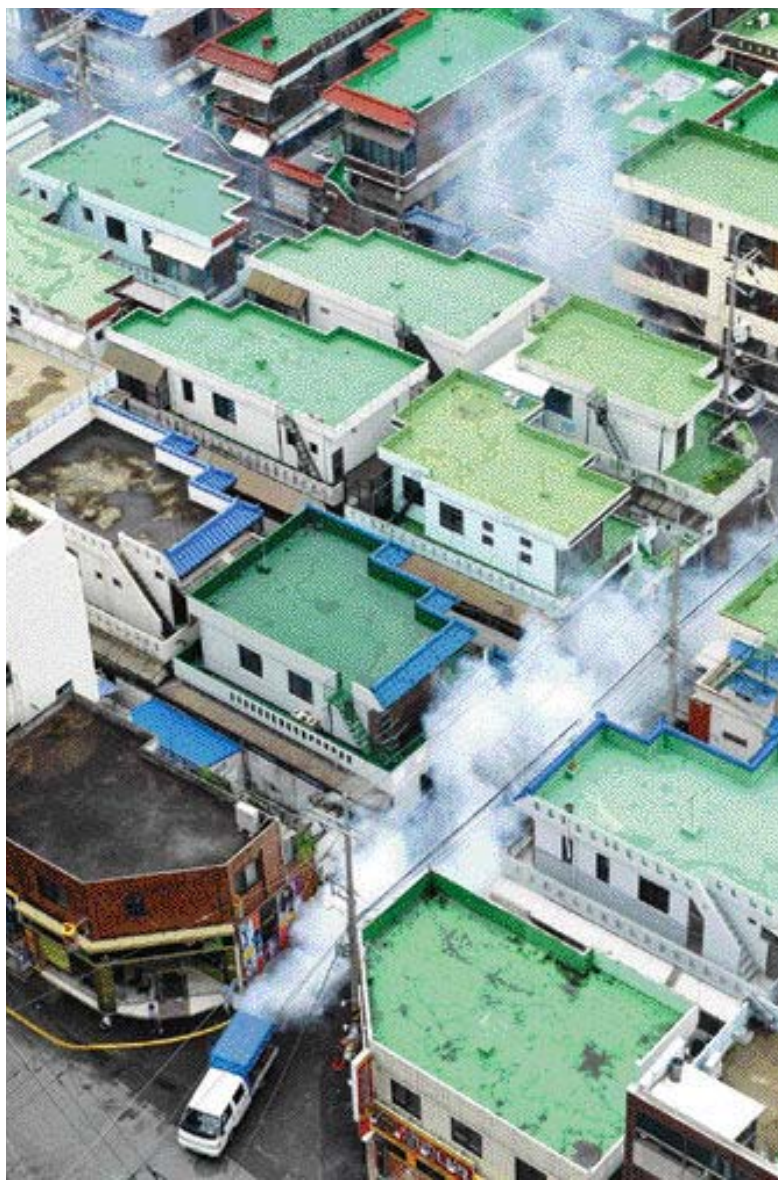
오늘 전국에서 실시

소방방재청은 18일 전국에서 불시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에서 예고 없이 공습 상황을 가정한 주민이동 연습과 차량 통제가 15분간 이뤄진다.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산간지역이나 바닷가 등 풍수해 우려 지역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훈련이 열린다. /연합뉴스



주택가 방역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나간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운임1주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일대에서 방역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보건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매일 두 차례씩 지속적으로 방역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셋째 아이 축하금 100만원·건강보험 150만원

광주 남구 내년부터 셋째 아이부터 축하금 형태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50만원 상당의 신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남구는 2007년부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매달 2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으며, 넷째와 다섯째 신생아에게도 적용된다.

또 최근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보험료 대납보다 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반영, 내년부터는 100만원씩의 출산 축하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셋째를 낳는 가정에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스폰서 검사' 의혹 정세 "미공개 장부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감사팀은 17일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장부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가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접대

전복장터
0621576-8600

아이엘리시아
0621671-1199